

### (서식 3)

##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1. 군산내흥초등학교에 지원하며

☐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비전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일어나면 달려가고 싶은 행복한 곳. 그곳이 학교라면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식정보 사회는 창의력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 협업능력, 갈등관리 능력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지금까지의 분절적으로 개별 교과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미 만들어진 지식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이를 삶에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젝트학습, 직접 몸으로 익히는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은 학생의 삶 속에 녹아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경감 최적화를 통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는 학교 운영을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최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는 미래 교육 핵심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학교의 특성상 학교일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토론문화형성 및 민주적 가치 교육을 위한 다모임 운영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협력하며, 교원들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격려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할 때 더욱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교육공동체가 이끌어 가는 교육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 2. 추구하는 가치

교육대학을 졸업하면서 읽은 「창작과 비평」의 어느 한부분에 ‘교육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밥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거기에는 교육은 없고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라는 의미만 남게 됩니다.

교육대학 졸업 후 부안 중계분교에서의 강사 생활은 아이들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배움에서 멈추지 않고 삶과 연결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자신의 생활을 글로 쓰는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읽었던 글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 곳에서의 공부는 친구와의 놀이였고 자연과의 만남이었으며 언니, 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보살피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학생의 삶의 일부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불행한 아이는 자라서 살아가는 삶 또한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기초기본 교육을 튼튼히 하고 체험을 통해 공부와 삶을 일치시키며 또래와 선후배 관계에서 배려와 나눔을 학교에서 배운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을 우선으로 가르쳐야합니다. 그러한 인성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 3. 사랑, 열정,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교사

1990년 9월 1일 정식으로 발령 받아 2013년 2월 28일까지 초임 고창에서 2년 반, 그리고 군산에서 19년, 전주에서의 1년을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가. 열정과 사랑으로

초임시절 고창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교사로서의 삶의 바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아이들과 함께 약수터까지 뛰어가 먹던 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으며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저녁시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 섬에서는 독서활동을 통해 부족한 세상에 대한 경험을 채워주려 노력하였으며 별이 빛나는 밤에 학교운동장에서 별자리 이야기와 함께 별 관측을 하거나 학교 뒤 해수욕장에서 모닥불 놀이를 하며 서로 부대끼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겨울방학에는 승합차를 대절하여 서울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눈 내리던 고궁과 국회의사당에서 밝게 웃던 아이들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 나. 전문가로서의 거듭나기

○○초에서는 교육부 열린교육 연구학교의 학년 팀장을 맡아 열린교육의 다양한 수업모형과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군산○○초에서는 교육부 7차교육과정 연구학교를 하며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경험하고 교과서를 분석하며 교육과정에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부장으로 공립학교 최초의 사이버 가정학습을 운영하였고 발산초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학교 연구부장으로 있으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현장에 정착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전라북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4. 학교 지원자로서의 교감의 역할

2013학년도 3월부터 김제에 있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2년을 근무하였고, 2015학년도 부터는 전주시내 ○에 개교하는 전주○○초등학교로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가. 농어촌 학교에서의 교감의 역할

교감 초임 발령지는 김제에 있는 작은 학교 ○○초등학교였습니다. 3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로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고 생태체험과 각종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실 있는 학교였습니다.

소인수 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군 사업과 어울림학교를 신청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군 사업을 통해 이웃하고 있는 봉남, 남양초등학교와 함께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각종 행사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김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되어 교육청지원 스쿨버스가 운행되었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시내학생이 시골학교로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해에는 학생수가 30명이 넘었으며 학교는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 나. 참학력 신장을 위한 업무경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2015학년도에 전주에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혁신지구 에 개교하는 학교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설 학교의 특성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출발해야 했고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실과 학교 건물의 환경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참학력 모델학교와 학교업무 최적화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학교업무 최적화를 통해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져 올해에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혁신학년 운영과 전학년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업무들이 업무전담팀에서 이루어져 교사들의 업무가 대폭 감소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들은 교사전문성 신장과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되어 학생교육의 정상화와 수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5. 제가 군산내룡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 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어른이 됩니다.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스스로 배움을 즐기고, 기초기본교육이 튼튼하며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 어린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를 교육하는 참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나. 업무 최적화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이 자율화 되는 만큼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무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에 쫓기는 교사는 수업을 잘할 수도, 학생 개개인의 마음을 살피고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의 숫자가 적어서 많은 업무를 소수의 교사들이 처리해야합니다. 교사의 업무가 많아지면 수업준비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교사의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시간을 돌려주기 위해 교무업무전담팀을 운영하여 통계처리, 설문지, 단순 보고성 공문 등은 전담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교감이 없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장도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 소통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는 자발성을 이끌어 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교무회의가 실질적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의 상시적 소통 구조 형성 및 동문,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라. 안전한 학교

안전한 학교시설에서 안전한 급식을 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 모니터링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